



북한 기도회

2022년 6월 - 2022년 7월





기도제목1. 북한의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0일 기준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누적 발열자는 약 474만여명이고 이 중 대부분이 완쾌되어 8130여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추가 발표가 없어 여전히 73명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북한은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방어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코로나 검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증환자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의약품이 부족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발표된 사망자 수에 비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우려됩니다.

북한에 코로나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서민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숨어있는 성도들과 추방 및 갇혀 있는 성도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의료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2.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식량난 타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2년이 넘는 봉쇄 장기화로 대부분의 무역이 제한되었고 장마당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발병과 확산은 주민들의 건강 뿐 아니라 경제적 생존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확산 시기가 주요 모내기철인 5월과 겹치면서 식량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봉쇄조치와 홍수로 인해 굶어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숨진 사람보다 많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국경이 정상화되고 장마당 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다시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외부의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상황을 주민 통제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등과 연계되어 더욱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 내에 적발된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운 순교와 피해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과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 외에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4.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AEA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재가동 징후를 여럿 포착했다고 합니다. 한미 정부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 당국의 모습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문제가 평화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5. 중국의 오미크론 사태 해결과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선교에 중요한 현장들도 계속해서 지역별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 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원활하게 북한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6.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 현장의 길이 대부분 막혀 있는 어두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릴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교현장에 계시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사람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 선교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교 현장의 일꾼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현장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